

## 한농연 및 지역 농업 관련 소식

- 한농연대구광역시연합회(회장 정성중)의 생산자 직판장 운영 사례(대구지하철 1호선 문양역 역사 활용)
  - 한농연대구광역시연합회(회장 정성중)는 대구지하철 1호선 서쪽 종점역인 문양역 1층(500평)에서 2009년부터 생산자 직판장(로컬푸드 직매장)을 운영중임
  - 한농연대구광역시연합회는 대구도시철도공사의 협조를 받아 판매 공간을 대여받고, 달성군청(4억 8천만원)의 지원으로 직판장을 운영하고 있음
  - 대구광역시연합회의 직매장은 전북 완주군의 로컬푸드 직매장(완주로컬푸드 안대성 대표)을 가장 철저히 벤치마킹한 사례로 소개되고 있는데, 슈퍼마켓과 비슷하게 일반 생필품을 판매하는 구역이 있고, 농산물 판매구역은 지역물품+전국물품 등을 고루 판매하는 방식임. 대구·경북 지역 농산물은 별도로 생산자 표시를 하고 포장재도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음(달성군 및 성주군 농산물 활용)
  - 이 사례는 한농연 각 시도·시군구연합회에서 농산물 직판장을 직접 운영하는 사례 중에서 로컬푸드의 관점을 받아들여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사례 중 최초로 주목해야 할 것임



- 경북 모 지역농협에서 조합원 몰래 고정대출 금리 조작 파문 (KBS1TV 보도)
  - 9월 24일 오전 7시 방영된 KBS1TV 뉴스광장에서 경북 모 지역농협에서 조합원 몰래 고정대출 금리를 조작한 사례가 보도됨. 고정대출 금리 조작 사례는 3년 전 KBS2TV의 “추적 60분”을 통해서도 방송된 내용이며, 농협중앙회 및 농식품부의 향후 대처가 어떻게 될지 주목
  - KBS 보도에 의하면, 경북 모 농협 조합원인 김모씨는 2006년부터 지금까지 경북의 한 농협에서 20억원 정도를 대출받았는데, 고정금리로 수천만원씩 대출받은 계좌들에서 이자가 조금씩 늘어난 것을 뒤늦게 파악하였음. 금리내역서를 받아 보고서야 고정금리 6.9%가 7.8%, 7.1%짜리 대출은 7.95%까지 된 걸 확인한 것임
  - 김씨 외에도 강모씨의 경우 0.7%포인트, 정 모씨는 무려 1.25%포인트까지 올라 각각 640여만 원과 250여만 원의 이자를 더 낸 것으로 나타났음
  - 이 농협에서는 또 변동금리로 대출 약정을 하면서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아예 표기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표기한 사례가 무더기로 발견됐다고 KBS는 보도함

- 이에 해당 농협은 금리 변경시 우편으로 통지했다는 입장임. 그러나 농협의 대출거래 약정서에서 고정금리는 만기일까지 바꿀 수 없도록 돼 있으며, 이를 농협중앙회(상호금융리스크 관리부) 직원도 확인하였음
- 지난 2011년 이후 금리조작으로 지역농협 120여 곳이 적발됐지만 이 농협처럼 감독기관에 적발되지 않은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KBS가 보도하여, 향후 정부·농협중앙회의 조사작업은 물론 10월 국정감사의 핵심 논점이 될 것으로 전망됨

##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제도 관련 소식

- 신성범 의원, 농어업경영체육성·지원법 개정안 발의
  - 신성범 의원(경남 산청, 함양, 거창)은 시·도지사가 영농계획을 평가하여 후계농업경영인을 선정하되, 관련 현황자료를 매년 농식품부 장관에게 제출토록 의무화함으로써, 후계농업경영인의 선정과 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한 취지로 농어업경영체육성·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음
- 농식품부, 후계농업경영인 평가·인증제도 도입 위한 연구용역 발주...9월말 최종 보고서 발표 전망
  - 농식품부 경영인력과(김기훈 과장)는, 후계농업경영인의 성공적인 영농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, 후계농업경영인 평가·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(용역기관 :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)하여, 9월초 중간보고회까지 마친 상황임
  - 농식품부는 후계농업경영인은 물론, 일반 농업인에 대해서도 영농·경영 능력 및 농업인단체 활동 참여 등 다양한 평가 지표를 마련하여 평가·인증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준비 작업의 일환으로 동 연구용역을 추진중이라고 설명함
  - 연구용역 단계에서 구상중인 평가·인증 방식은 3가지인데, △ 기존 후계농업경영인(한농연 회원)에 대해서만 실시하거나 △ 후계농업경영인과 일반 농업인을 동시에 실시하거나 △ 후계농업경영인과 일반 농업인에 대한 별도의 평가·인증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제시되어 있는 상태임
  - 아울러 축산·시설원예 등의 분야에서 외국인노동자와 계절(일시고용)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기초적인 의사소통 및 영농능력을 측정하는 평가·인증 제도도 도입하겠다는 게 농식품부의 입장인 것으로 확인됨
- 후계농업경영인 평가·인증제도 관련 한농연의 대응 방안
  - 한농연은 농식품부의 연구용역 추진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, 연구용역의 전문가 자문회의 및 중간보고회 등에 적극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있음
  - 특히 후계농업경영인 인증·평가 제도가 향후 정부의 농업인력(경영체) 육성 정책의 핵심 틀로 작동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어, 한농연은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이 제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임